

### 미륵종 신림수계법회 승려단기연수교육



10월 14일 미륵종 승려교육장에서 열린 단기연수교육 입학식 모습.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은 10월 14일 사미(사미니)계 산립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승려 단기연수교육을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미륵종 승려교육장에서 실시했다.

미륵종은 전국 각 말사에서 수행하던 예비승려를 매년 10월 초집, 10일간의 합동교육을 실시하며, 사미계 수계법회 봉행에 이어 단기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사미(사미니)계를 득한 예비승려는 23명(사미15명 사미니8명)이다. 이들은 수계식후 미륵종 승려단기연수에 동참했다

경남 서부지사장 영민

# 가을 산사에 가면 멋과 맛이 있다

## 산사음악회 및 기도·정진하는 내실 갖춘 축제다양



울산 월봉사에서 10월 11일 열린 제5회 문화예술축제 중 해수관세음보살 봉안식 모습.

대웅보전 일대에서 불공 및 6주년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아미타대불 인연의 손 제막식,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등이 마련된다.

잔디마당에서는 이경순(영광문화예술원 관장) 연꽃사진 초대전이 열리고, 청풍루 주변에서는 국수, 부침개 등을 즉석에서 요리하는 먹거리 장

터가 마련된다. 10월 24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예불까지 삼천 배 정진기도를 올릴 예정이다.

내원정사(주지 정련, 051-809-1551)는 11월 17-21일 5일간 제3회 개산정진대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후 1~4시 까지 하루 3시간씩 참선은 불교대학 강의실, 사경은

청람계, 1080배는 대적광전에서 각각 진행된다. 개산정진대법회 회향의일인 22일에는 탐사와 위봉사, 송광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052-251-4602)는 10월 11일 제5회 문화예술축제를 봉행했다.

‘소외된 노인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해수관세음보살 집안 및 봉안, 선사화 전시회,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 적문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 어린이 사생대회 및 백일장, 풍토사 주지 정우 스님 초정법문, 달빛다도회 시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열렸다. 특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달이랑 별이랑 사랑이랑’ 산사음악회에는 주지 오심 스님의 법고 연주, 심진 스님, 이치현과 벗님들, 영조 등 인기가수가 출동해 축제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불국토를 찾아서

삼광사 한글학교

## “한글배우며 젊음 되찾아요”

“사각사각, 탁!” 선생님이 판서를 마치고 분필을 내려놓자 학구열에 불타는 몇몇 학생들이 교탁 아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필기를 시작했다. 수능을 한달여 앞둔 고3 수험생의 족집게 수업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의 이곳, 바로 삼광사 한글학교다.

삼광사(주지 화산) 한글학교는 4년제로 운영된다. 한 학년에 평균 1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40~42주



삼광사 한글학교 학생들.

그냥 기도하러 올라오던 중에 내가 졸졸 외우는 불경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책상에 앉아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어느새 글자를 잘 쓰는 내가 신기하다”고 말했다.

반면, 2시간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을 알리는 차임벨은 없다. 오전 10시 1교시를 시작하고, 10시 40-50분 쯤 되면, 선생님이 칠판에 오늘의 받아쓰기 10문항을 판서한다. 이때부터 2교시 시작 전까지 약 20분간 자율적으로 쉬면서 받아쓰기 대비예습을 하고 있다. 물론 받아쓰기는 문제와 정답이 똑같아, 답을 미리 알려주려고 시험을 치는 셈이다.

삼광사는 삼광한글학교상과 대학생 논문대회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애임없이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9일 제563회 한글날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주지 화산 스님은 허남식 부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정오, 수업이 끝나자 한껏 곱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손잡고 부리나케 교실을 빠져나간다. 이들을 붙잡고 어딜 그리 바빠 가지냐고 물었더니 “좋은데” “데이트하러” “맛있는 것 먹으러” 간다며 10대 여고생들처럼 까르르 웃었다. 삼광사 한글학교는 70명생 살며 글을 몰라 당한 설움을 씻어주는 것 이상으로, 1920~1940년대 암울했던 현대사에 빼앗긴 학생시절까지 되돌려줬다.

박지원 기자

## “한국 불교 새 리더십 구축”

###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창립3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창립3주년 기념법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박수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

모범적인 단체로 골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모두의 열성적인 개척정신과 헌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 3년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부터 불교세미나와 대중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교계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새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

에는 범어사 전계대화상 홍교스님과 범어사 전 강주 지오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과 사무총장자인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및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해 3주년을 축하했다.

지난 3년간 포럼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하며 각오를 다진 행사가 범어사 전계대화상 홍교스님과 범어사 전 강주 지오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400여 회원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 사명 대사 추모 행사 잇따라

### 표충사, 추계향사 봉행·부산 추모광장 조성 중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들과 수탈당했던 통도사 적멸보궁의 진신사리 등 수많은 성보를 되찾아 온 사명 대사의 열반 제 399주기 기일을 맞아 부산과 고양인 밀양 등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영)는 10월 14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사명대사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정영 스님은 추모법회를 통해 “불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속세를 벗어나 산중에 은거한 듯 보이지만 항상 국가와 민족 속에 함께 하며 고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함께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친 수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현재 연합회는 부산시로부터 1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9월 18일 호국광장 조성 성역화사업 기공식을 봉행하고, 2010년 3월 5일 완공을 목표로 사명 대사 호국광장 조성 성역화



10월 14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명대사 추모대법회에서 스님들이 헌화하는 모습.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19일 호국대성 사명 대사 추계 향사를 봉행했다. 사명 대사를 비롯해 풍전등화의 국난 중에 나라를 구한 서산 대사와 기허 대사가 분향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여러 호국충절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번 추계향사는 1477년 조선시대부터 해마다 이어져 532회 짝을 맞았다. 한편,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 대사가 머물며 승병을 훈련시켜 전쟁에 대비했던 호국성지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수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지원 기자

## 공불련 창립 9주년

### 템플스테이·법회 봉행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창립 9주년을 맞아 10월 10-11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 및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날인 10일 저녁예불 및 입제식을 시작으로 적멸보궁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정진기도, 대의원 총회, 익일 새벽 4시부터 부도탑에서 금강계단 삼보일배, 묵언 숲길걷기, 서운암 포행순례, 제9주년 기념법회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하복동 회장은 “이곳에 머무는 1박2일 시간이 짧지만, 부처님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적멸보궁 아름다운 산사에서 불법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대우스님 禪詩

## 그대 그리운 날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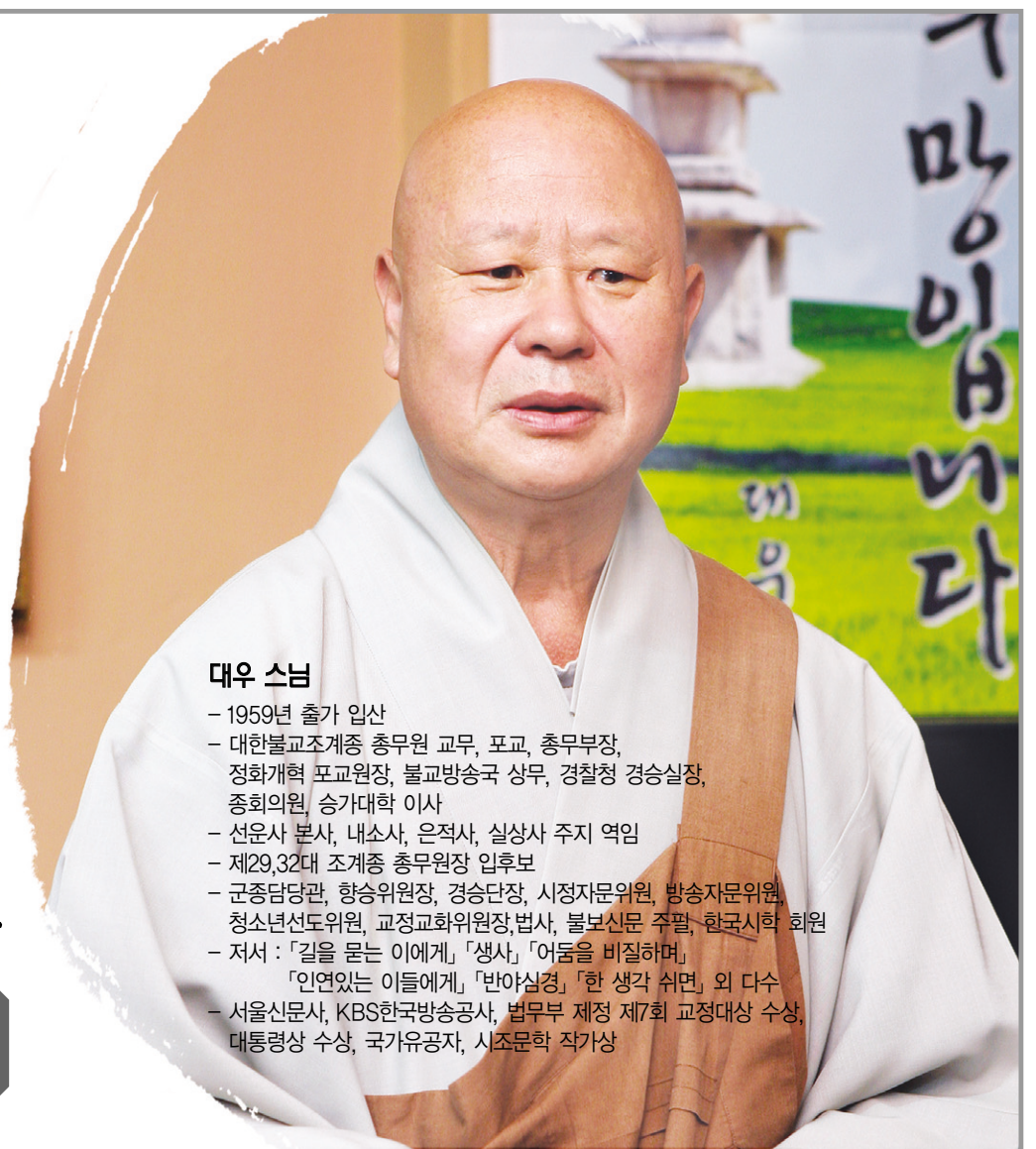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창회글 백련선원 대우 합창 010-2625-3307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척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종회의원, 승가대학 이사
- 선운사 본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중담양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회위원장, 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시학 회원
- 저서: 「길을 묻는 이에게」, 「생사」, 「어둠을 비집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 「반야심경」, 「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